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2호 【루계 제24340호】 주제 102(2013)년 10월 19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히 떨치자!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어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대백공격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더없이 보람찬 투쟁으로 되고있다. 지금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진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이 락을 누리고 명망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희한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써 비약하는 조국의 혁신 기상을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오늘의 변혁의 시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얼마나 거대한것이며 고귀한 재보인가 하는 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자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를 앞선 혁명적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 정치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세상사람들이 현대사의 가장 장구적인 전진이라고 평하는 지대한 반세기대결전에서 편견편승의 기세를 창조하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쫓아 이 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시실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다. 선군의 길에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보지 못한 최상의 높이에서 올라서고 세계를 향하여 파강해 돌진하는 장엄한 대진군이 펼쳐지게 되었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오던 반복과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6.15 통일시대가 열리기 시작되었다. 시련을 겪고있던 인류사주업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그 하나 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듬은 정치가로서는 수십수백년 걸려도

이룩할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세계정치사는 아직 위대한 장군님처럼 그렇게 짧은 역사적기간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비상히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업적을 이룩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백두령정의 선군령도업적은 그 내용이 풍부할뿐 아니라 가장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과제들을 훌륭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더욱더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최세의 정치친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국통일의 구성, 인민주주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적대국들의 정치가들도 머리를 숙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선군령도업적은 당대에도 위대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뿌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업적이다. 여기에는 혁명 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모든 사상 리론적, 전략술적지침들과 역경을 승전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면서 세기적업적과 목표를 창조하여온 영웅적투쟁전통, 비상히 풍부한 경험의 집대성으로서 더 보나 온 승리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정치군사적, 경제과학적재부가 담겨져있다. 이 위대한 혁명업적에 토대하여 주체혁명 시대로는 100년대 전진길을 다그치나가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공적이며 영광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 밑에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과 재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장군님께서 출기차게 이어오신 선군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야 하며 그 길에서 사회주의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해나가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업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일심단결의 나라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어나가자.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

령도자와 당, 군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산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의 정교로 부치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사랑으로 한입더리를 이룬 선군혁명 단결을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이 혼연일체의 위력은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성과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리제해의 예지와 세련된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건의 뜻과 념원이 거창한 현실로 전변되고있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강군대와 인민의 전우적합동 투쟁기풍을 새로이 부흥시키고 있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헌신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목숨을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령도자가 벽을 올리면 강산을 울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우적합동 투쟁기풍을 새로이 부흥시키고 있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헌신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목숨을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령도자가 벽을 올리면 강산을 울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우적합동 투쟁기풍을 새로이 부흥시키고 있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헌신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목숨을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강력한 자위국방력을 절벽으로 다져야 한다. 천하무적의 자위국방력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시실수 있는 업적중의 업적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의 믿음직한 원천이다.

인민군대는 백두산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전략술적승업력과 군사기술적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언제 어디서 덤벼들어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 할수 있도록 억제해 준비하여야 한다. 로동적위군은 일단 유사시에 자기도, 자기군, 자기향토를 튼튼히 지킬수 있도록 전투적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위해하며 조국수호전도, 사회주의건설도 어깨걸고 함께 해온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꾸려주신 강력한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근본목적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부흥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

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안보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위업없이 찾으며 최첨단과학, 새 세상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켜올리시고 지식경제 강국건설의 든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주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을 창조하여주시였다. 온 나라 어디나 백두의 선군령정의 강행군로가 아예되었고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결세의 애국자의 뜨거운 열과 정이 깃들여있으며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도 장군님의 체취가 스며들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저지도 못한 어이까지 쌓아올리신 부강국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위한 신념을 투영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공업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이 유쾌하고 행복 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행부,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어 마련된 자립적토대가 온을 내게 하고 현대화, 생산성상화의 동음이 새겨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전진과학기술혁신을 힘있게 다그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교육,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는 우리의 충성은 말이나 구호로가 아니라 충성하게 자기 부패, 자기 단위에 주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천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 마련해주시였다. 각각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우레처럼 미친것들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단 한편의 미결건도 없이 끝까지 집행해나가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투쟁에서 기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은 우리 당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적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시대의 증견자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현직지도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국의 부강번영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애국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 온 나라에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된다.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도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감으로써 장군님의 업적이 길이 빛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적과업들을 결사관철하는 강한 혁명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 정책적과업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여놓으신 강성번영의 씨앗들을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로 주렁주렁 하며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일을 기어이 실현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준 과업을 즉시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체제가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과 승결과, 발전에도 같이하고 운명도 함께 하려는 사람들과는 당정책관철에서 조직타발을 하며 총정거하거나 중도반란하는 현상, 요령주의, 배신주의가 추호도 있을수 없다.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기본이다.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정치적자질이 없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으며 기적을 창조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결월이든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백두의 기상과 대담한 공격력으로 완강하게 돌파해나가는 투쟁행로에서 이룩된 불멸의 재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시는데 현시기 우리 당의 의의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결세위인들의 공격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본보기집단이다. 모든 단원들과 근로자들은 마시령스키장건설과 세포동관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회약에 붙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결사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의 단속에 공격정신, 공격속도에 보폭을 맞추며 전군도 전진하여야 하고 모든것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게 창조하기 위하여 뛰고 뛰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각각 당조직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잘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겠다는가 하는데 대하여 머리를 써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혁명사작관과 혁명사작교양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큰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널리알려주고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여있는 애국심을 김일영애국주의로 승화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귀중히 여기고 결렬히 옹호고수해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충정이 혁명실천을 통하여 높이 발휘되도록 교육과 무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에서는 어려워도 주저없이 있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세와 립장이 흐트러지지 않는 순결한 충정의 인간, 광성의 인간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업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계속시키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도 장군님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밑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대대로 끝없이 빛을 뿌려주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이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질 좋은 천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김정수형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령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저발음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정수형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령기모임이 18일에 진행되었다. 박문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였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당위원회 비서 오춘영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민필홍, 견방종합직장장 박기영, 과장 림수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령도를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신지 하루한 현저지도의 자국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성향상, 제품의 질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을 수 있을지 실현하여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시는데 그것이 당의 의지와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말했다. 공장의 후방사업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학부부지도 몹스 정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안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김정수형양방직공장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발음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생산을 비

롯한 공장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질 좋은 옷감과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이 새로운 기술로 정비된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 공작공을 높이며 사회주의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릴데 맞게 말려진 일일정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기술대렬을 잘 꾸리며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

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할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일군들은 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며 후방공급사업을 짜고들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의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공장이 **«마시령공수도»** 창조의 열풍으로 새차 굴어빈지게 함으로써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초산청년 2호 발전소 건설 완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은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대 영향을 일으키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서 나서고 있습니다.»** 초산군에서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완공하였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착공의 첫날부터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쟁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헌신적투쟁을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만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곧은 암반을 깨내면서 90여일동안에 수백m의 방수로공사를 끝내는 락차고 높은 락차고를 얻을수

있는 유리한 지점인 구룡저수지에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건설할 데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발전소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군의 당원들과 청년들로 돌격대가 꾸려졌다.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계절에 따르는 구룡저수지의 물흐름량과 일기조건을 잘 타산한데 맞게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착공의 첫날부터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쟁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헌신적투쟁을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만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곧은 암반을 깨내면서 90여일동안에 수백m의 방수로공사를 끝내는 락차고 높은 락차고를 얻을수

있는 유리한 지점인 구룡저수지에 초산청년 2호발전소를 건설할 데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발전소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군의 당원들과 청년들로 돌격대가 꾸려졌다.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계절에 따르는 구룡저수지의 물흐름량과 일기조건을 잘 타산한데 맞게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착공의 첫날부터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쟁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헌신적투쟁을 벌였다. 돌격대원들은 만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곧은 암반을 깨내면서 90여일동안에 수백m의 방수로공사를 끝내는 락차고 높은 락차고를 얻을수

백암땅에 울려퍼지는 대자연개조의 세찬 동음

량강도도지개간전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1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백두대지에 대자연개조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고있다. 중대한 자로에 의하여 백암군의 토지개간전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이 최근 몇몇 동안 1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하였다. 또한 50정보의 방포를 조성하고 수십km의 도로와 포진도로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정리사업도 따져 하셔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백암군을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여 수십차례의 교시를 주시고 백암군에 대항단과 같은 큰 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암군을 현대적인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시던 이상을 안으시고 토지정리사업을 늘일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는데 주체 99(2010)년 5월 백암군 덕포지구에 일떠서고있는 감자농장을 찾아보고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백암군의 부침땅개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결세위인들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토지정리회부에서 수습대의 불도행에 량강도 백암군토지개간전투에 증강 배치하고 자재보급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토지개간에 이 사업에 적극 밀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토지정리회부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가까운 몇해여간 1만정보가 훨씬 넘는 토지를 개간한데대하고 통계국 목표량을 세우고 로력과 기계화수확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용대를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백두대지에 대자연개조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고있다. 중대한 자로에 의하여 백암군의 토지개간전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이 최근 몇몇 동안 1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하였다. 또한 50정보의 방포를 조성하고 수십km의 도로와 포진도로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정리사업도 따져 하셔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백암군을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여 수십차례의 교시를 주시고 백암군에 대항단과 같은 큰 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암군을 현대적인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시던 이상을 안으시고 토지정리사업을 늘일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는데 주체 99(2010)년 5월 백암군 덕포지구에 일떠서고있는 감자농장을 찾아보고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백암군의 부침땅개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결세위인들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토지정리회부에서 수습대의 불도행에 량강도 백암군토지개간전투에 증강 배치하고 자재보급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토지개간에 이 사업에 적극 밀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토지정리회부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가까운 몇해여간 1만정보가 훨씬 넘는 토지를 개간한데대하고 통계국 목표량을 세우고 로력과 기계화수확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용대를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백두대지에 대자연개조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오르고있다. 중대한 자로에 의하여 백암군의 토지개간전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이 최근 몇몇 동안 1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하였다. 또한 50정보의 방포를 조성하고 수십km의 도로와 포진도로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정리사업도 따져 하셔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백암군을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여 수십차례의 교시를 주시고 백암군에 대항단과 같은 큰 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암군을 현대적인 강자생강까지 꾸며달라 하시던 이상을 안으시고 토지정리사업을 늘일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는데 주체 99(2010)년 5월 백암군 덕포지구에 일떠서고있는 감자농장을 찾아보고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백암군의 부침땅개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결세위인들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토지정리회부에서 수습대의 불도행에 량강도 백암군토지개간전투에 증강 배치하고 자재보급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토지개간에 이 사업에 적극 밀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토지정리회부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가까운 몇해여간 1만정보가 훨씬 넘는 토지를 개간한데대하고 통계국 목표량을 세우고 로력과 기계화수확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용대를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특파기동 세 동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힘있게 전개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하리

각 지 당 조직들에서

각 지 당 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열교양을 더욱 심숙하게 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를 똑똑히 알고 주체의 혁명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지 당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도록 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와 빛나는 혁명전열을 깊이 체득시키고 있다.

중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불멸의 혁명업무를 내내 그토록 섬도움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를 잘 알도록 하고 있다.

새겨주고 있다.

신천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함해남도안의 당 조직들에서는 선동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가을걷이와 난탈기전투자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와 빛나는 혁명전열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널리 해설전전하도록 하고 있다.

동창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당 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대한 학습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다.

합천북도과 평안남도안의 당 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 학습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E. C.》에서 뿌리내린 우리 당의 불멸의 력사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 당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1권에 수록된 《라도제국주의동맹》에 대한 내용을 두루, 연구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

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남포시안의 당 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심숙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부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열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다.

각 지 당 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력사적부리와 빛나는 혁명전열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랜 력사적부리와 빛나는 혁명전열을 가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방향이 혁명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불태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신 위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선군혁명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며 드높은 절도로 가슴끓이며 《E. C.》창조를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무거웠다.

—과연 보수작업반들이 그 아름찬 과제를 제기에 해낸수 있었는가.

더우기 보수 1작업반 당세포 비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증이었다.

그런데 보수전투가 진행되는 날에 뜻밖에도 당세포 지서 고광삼동무가 그 몸과 마음과 회상을 나타냈다.

초급당원들이 다져지고파병원으로 떠났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10월의 의의깊은 날들을 맞이하니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우리 당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의 열렬한 인사들은 모두 당원들이 떠돌아와야 할 귀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더 깊이 새겨져 이렇게 달려나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전투에서 당세포가 선군시대 《건설동지사》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전투에 자기도 서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병원치사를 뛰쳐나와 불사신 같이 보수전투를 벌려가는 당세포비서의 헌신적인 희생적 모습은 당원들의 심정에 불을

달았다.

당세포들의 이런 불같은 투쟁에 의하여 직장에서 1단계 보수전투를 사후, 2단계 보수전투를 이틀이나 앞당겨 끝냈으며 마침내 령합기업소적으로 겨울철에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었다.

이것 당세포들만이 아니다. 《마시령속도》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 총동원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인민경제계 모든 부분의 당세포들이 분발해나섰다.

당세포비서들이 대고조선군의 양상에서 달리고 있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보다 어깨를 먼저 들이밀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이 전당 당세포비서들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하시어 당세포사업과 관련한 강령적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순결한 향신으로 지켜나가는 당세포비서들에 의해 대고조선투쟁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그 어떤 말이나 구호보다 아니라 불같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전당의 당세포들은 선군시대 《건설동지사》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되고 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투쟁하는 당의 위력 떨치며

《E. C.》에 뿌리를 둔 우리 당의 력사는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사된 성스러운 력사이다.

투쟁하는 당인 우리 당의 위력은 오늘 최후승리를 위한 대고조선군에서도 높이 떨쳐지고 있다.

각 지 당 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을 오늘을 대고조선군으로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잡으며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이다.》

인민경제의 선형부분, 기초공업부분의 당 조직들에서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뜻깊은 올해의 승리적계속을 위한 대고조선군을 다그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에 달려나가는 화성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E. C.》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당의 위력에 대한 해설전전을 실천하고 결부시켜 진행되는 당일군들의 격동적

인 정치사업은 로동계급의 가슴 가슴을 새겨쳐 울려주고 있다.

—자기의 일러, 자기의 초소를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제일선참호로 여기고 자기앞에 말려진 해골들을 무조건 수행하라. 실천으로 당을 받들자!

로동부총장, 영광사업소와 공무관중장, 정미분공장을 비롯한 령합기업소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속예 전투장들마다에서는 대고조선군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날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시와 연안군의 당 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난탈기전투장들을 부글부글 꺾고 있다.

특히 모든 당세포들을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 청년선계직장을 비롯한 령합기업소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속예 전투장들마다에서는 대고조선군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날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시와 연안군의 당 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난탈기전투장들을 부글부글 꺾고 있다. 특히 여러 단위의 기공예출산동원들을 발동하여 당에 대한 위대성교양을 심있게 하면서 당원들과 동맹원들, 지원자들이 당원들 영웅선투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E. C.》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하여 당일군들의 격동적

《E. C.》의 전통을 이어 위대한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 있다.

— 당 창건 기념탑에서 —

본사기자 장 철 범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의 역센 뿌리가 되었고 입심단결의 시원이 되었다. 당의 혁명전열이 여기기부터 마련되었고 혁명의 조직적공간이 자라났다.

《동지! 신성한 그 부름을 두고》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의 역센 뿌리가 되었고 입심단결의 시원이 되었다. 당의 혁명전열이 여기기부터 마련되었고 혁명의 조직적공간이 자라났다.

《동지! 신성한 그 부름을 두고》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E. C.》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평양체육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체육관창립 40돐 기념 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종무체육상, 판계부분, 평양체육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체육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주체체육발전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고 있다는 격동적인 시기에 창립 40돐을 맞은 평양체육관의 전체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과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사가 뜨겁게 깃들여있는 평양체육관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기념비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62(1973)년 4월 3일 평양체육관을 창립해주시고 여러차례 헌치에 나오시어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에 걸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체육문화오락기계를

과일증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발전시켜 과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일군들이 이 지령을 높이 받들고 과일의 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과일증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발전시켜 과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일군들이 이 지령을 높이 받들고 과일의 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과일증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발전시켜 과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일군들이 이 지령을 높이 받들고 과일의 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이것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었다. 또한 생물활성비료와 린세비료도 생산이용하였다.

